

# 민주 “강릉~목포 4시간 시대”... 강호축 철도망 구축 약속

“예산 확보, 민주당이 책임질 것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 기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선행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강원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시)를 잇는 ‘강호축 철도망’ 구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2030년을 목표로 강릉에서 목포까지 약 4시간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고속철도망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와 이상호 강원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민형배 전남시장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강호축 철도망 합동 공약 발표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호축 철도망 구축은 강릉에서 목포까지 시속 200km 이상으로 (열차를 운행해) 기존에 9시간 걸리던 것을 절반 이하인 4시간 정도로 줄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한 야심 찬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강호축이 계획대로 구축되면 전국도 구석구석 닿는 대한민국, 더 빠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원과 호남, 충청을 잇는 ‘강호축 철도망 합동 공약 발표회’에서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이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정 대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뉴스시스

편리한 대한민국, 더 많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져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만개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강호축 철도망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더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며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인데,

그것은 집권여당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호축이란 말은 (뒤집으면) ‘축 호강’이라며 (강호축 철도망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어르신 호강을 시키는 길”이라고 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이라며 “이 예산은 책임지고 더불어민주당이 (확보를) 하겠다는 굳은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강호축 철도망이 완성되면 강원 원주시는 정말 교통의 요지가 돼 물류 등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강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는 “강호축은 국토의 ‘X’ 축인 오송을 지나 청주공항과 제천, 원주를 넘어가는 교통축 (구축을) 통해 청주공항의 활성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맞물릴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시베리아까지 연결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시장 후보는 “목포에서 광주송정역으로, 강릉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고속철도가 달리기 시작하면 거대한

교류의 장이 열리고 국토와 국민통합 시대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이 오가며 관계가 생기고 물류가 흐르고 산업이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광이 살아나고 시장이 넓어지는 선순환도 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한정에 정청래의장은 이날 공약 검토 경과를 보고하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북선 고속화 공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희당은 내년 기본·실시설계를 한 뒤 착공 설계에 들어갈 것”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2031년 개통과 준공을 목표로 하고 더 당길 수 있다면 청주공항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2030년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울러 “저희가 생각하는 바대로 추진될 경우 2030년 또는 2031년에 KTX-이음을 이용해 목포에서 강릉까지 환승 없이 4시간 주파가 가능하다. 목포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고속화 작업이 끝난다면 (운행 소요 시간을) 더 당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 與 ‘오뚝유세단’ 출정... “전국 누빈다”

6·3지선 경선 탈락 후보들로 구성  
오뚝이 정신 내세워 선거운동 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오뚝유세단(단장 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오뚝유세단은 6·3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로 구성됐다.

박주민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뚝유세단 출정식에서 “제가 지금까지 부산·대구·울산도 다녀왔고 전남의 여러 곳을 다녀왔는데 우리 민주당이 마음 놓을 곳은 없다”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뛰어야 하고 한 분 한 분 더 만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중요하다”며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힘든 길

이고 험한 길”이라며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하고 신발이 닳도록 많이 움직여야 한다. 그런 각오로 우리 오뚝유세단이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오뚝유세단의 첫 유세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 0시(자정)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에서 마무리한다. 박 단장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새벽시장 시민들을 만나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돕는, 서울시장을 만드는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같은 날 오후에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에서 밤늦게까지, (오뚝유세단 일원인) 김영배 의원의 각오로 자정까지 해보자고 하셔서 자정까지 한번 (선거운동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일 창원·울산, 23일 전북 등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일까지 격전지와 당세 취약지를 중심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

이다.

오뚝유세단은 선대위 중앙유세단으로 민주당 6·3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후보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당의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자세로 유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뚝이처럼 연대와 통합의 힘으로 원팀의 저력을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의원을 단장으로 안호영·장철민·전현희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수석부단장을 맡는다. 서울 김영배, 부산 이재성, 대구 김병주, 인천 김교홍, 광주·전남 신정훈, 대전 장철민, 울산 김영배·이선호, 세종 이준희, 경기 한준호, 강원 김병주, 충북 노영민, 충남 양승조, 경북 서영교, 경남 김영배·전현희·최구식, 제주 문대립 광역단장이 배치됐다.

/서예진 기자 syj@

## 여야, 삼성전자 노사 갈등 중재 압박

평택캠퍼스 찾아 간담회 열어  
野 양향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21일)을 앞두고 정부 중재로 노사가 타협점을 찾고 있는 가운데, 19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이 줄을 이었다.

우선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전남(18일)부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양 후보의 단식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에는 양 후보의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단식현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양향자 후보처럼 평생 반도체 산업 현장을 지켜온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무책임하게 통과시켜놓고 지금 아무런 해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책임 있게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양 후보는 장 대표에게 “한 번 생선라인이 흔들리면 글로벌 신뢰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오늘은 선거보다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울러 이날 오전 10시30분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대타협 촉구 단식 농성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힘 후보가 평택캠퍼스를 방문, 현장을 돌아본 뒤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같은 선거구의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이날 오후 1시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노사 상생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예진 기자·김보민 인턴기자

## “전제기능 회복... 성동구의회 수준 높일 것”

6.3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를 만나다

② 박함윗  
국민의힘 성동구의원 후보

진로 멘토링 늘려 교육 불안 해소  
공공 교육 지원 확대 등 제시

박함윗 국민의힘 성동구의원 후보(서울 성동구 나선거구 2-가번·1993년생)는 국토교통부 2기 청년보좌역 출신이다. 박 후보는 자신이 고안한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로 전국을 누비며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마련했다.

박 후보는 성동구의 청년 단체인 ‘성동청년비전포럼’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청년과 정치·정책 사이 가교를 놓았고, 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성동구 최연소 구의원 출마자로 공천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박함윗 후보는 최근 성동구의회가 민주당 우위로 국민의힘의 ‘전제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제1의 목표는 성동구의회의 수준을 압도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행정이 지역 현장을 무시하고 독주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보루가 바로 기초의회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의 오랜 독주로 인해 경제 기능이 마비된 성동의 정치를 바로잡겠다”며 “구의회 본연의 비판적 기능을 회복시켜, 행정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박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는 왕십리1동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을 관할하는 전통적인 성동구의 중심지다. 박 후보는 정부와 청년단체 활동으로 키워낸 실무역량과 공감능력으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겠다고 했다.

그는 “제 지역구는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유동인구가 흐르고, 인구 조화가 뚜렷한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어 성동

박함윗 후보 프로필  
서울 성동구 나선거구 2-가번·1993년생  
현)성동청년비전포럼 대표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시당 중구성동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국토교통부 장관실 청년보좌역  
전)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선정위원  
전)한국정책학회 청년정책연구회 이사

나에게 지방선거란? ‘실력의 증명’이다.

의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며 “하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고차원적이다. 중·고등학교를 둘러싼 교육 및 학군 문제, 왕십리역 복합개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지하화 이슈, 꿈틀거리는 재개발·재건축 이슈 등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선 고도의 정책적 이해도가 필요한 사안들”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당선 후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과 입시를 위해 구청 직영의 입시 진학 상담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왕십리와 행당 지역은 중·고교 진학 시점에 체계적인 입시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차동 등 교육 특구로 이동하는 가구가 많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행정 인력을 배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전문가 그룹을 초빙하여 맞춤형 진학 상담 및 진로 멘토링을 상설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급 입시 정보를 공공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동네 안에서 최적의 진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유아 및 초등 학부모를 위한 진로·AI 교육 등의 정기 강연을 병행하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기적인 교육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